

지역 소식통

정읍시, 123개 취약시설 대상 집중안전점검 실시

정읍시가 재난 취약시설의 위험 요인을 사전에 차단하고 시민 안전을 지키기 위해 20일부터 두 달간 '2026년 집중안전점검'에 본격 돌입한다.

올해 역시 시설 유형별로 첨단 전문 장비를 활용해 점검의 객관성과 신뢰도를 한층 끌어올린다.

시는 점검 과정에서 발견된 경미한 위험 요인은 현장에서 즉각 시정 조치하고 보수나 보강이 시급한 사항은 꼼꼼한 지속 관리와 후속 조치를 통해 완벽한 안전성을 확보할 방침이다.

이울러 시민이 생활 주변의 숨은 위험 요인을 직접 신고할 수 있는 '주민 점검 신청제'를 운영하며, 자율안전점검표 배부와 안전신문고 신고 독려를 통해 시민 참여형 안전 문화 확산에도 힘을 쏟는다.

/정읍=김대환 기자

부안군, 양파 종자대 지원사업 신청 접수

부안군은 최근 농자재 가격 상승과 인건비 부담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양파 재배 농가의 경영 부담을 덜기 위해 2026년 양파 종자대 지원사업 신청을 오는 30일까지 접수한다고 밝혔다.

올해는 최근 지속되고 있는 종자 가격 상승 추세를 반영해 1ha당 130만원(1칸당 13만원)이었던 종자대 지원 단가를 1ha당 140만원(1칸당 14만원)으로 인상해 농가의 체감 지원 효과를 더욱 높일 계획이다.

지원 대상은 군에 주소를 두고 관내 및 연접 시·군 농지에서 양파를 재배하는 농업경영체 등록 농가다.

또 개별 농가와 생산자 단체도 신청할 수 있어 지역 양파 산업 전반의 경쟁력 강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부안=김석진 기자

정읍시, 빅데이터 컨설팅 공모 선정

메이플랜드 중심 빅데이터 기반 관광객 분석... 맞춤형 체류 관광 전략 마련 나서

정읍시가 한국관광공사 주관 '빅데이터와 함께하는 특색있는 맞춤형 컨설팅 공모사업'에 최종 선정돼 메이플랜드(내장산 문화광장 일원)를 중심으로 한 체류 관광 전략 마련에 본격 나선다.

이번 공모 사업은 메이플랜드를 중심으로 관광객의 이동과 머무는 흐름을 과학적으로 분석하고 스쳐 가는 관광에서 머무는 체류형 관광으로 이끔 구체적인 전략을 짜기 위해 추진된다.

내장산 문화광장은 최근 '기적의 놀이터'가 새롭게 조성된 이후 방문객이 급증하며 정읍의 새로운 관광 중심으로 급부상하고 있다. 특히 가족 단위 방문객이 늘면서 단순한 나들이를 넘어 숙박과 소비로 이어지는 체류형 관광지로 발전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곳으로 평가받고 있다.

시는 이러한 긍정적인 흐름을 적극 반영해 이곳을 찾는 관광객의 유형과 이동 경로, 머무는 시간 등 방대한 대용량 정보(빅데이터)를 종합적으로 분석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가족 단위 관광객의 이용 특성과 소비 형태에 딱 맞는 맞춤형 즐길 거리를 새롭게 발굴하게 된다.



아울러 관광객의 이동 동선과 흐름을 짚어보며 체류가 끊기는 구간과 벗어나는 요인을 정확히 찾아내고 주변 관광 자원과의 유기적인 연계 방안을 마련해 체류형 관광 구조를 한층 탄탄하게 다질 방침이다.

이번 전문 상담(컨설팅)은 여행의 전, 중, 후 모든 과정을 촘촘하게 분석하는 'K-여정 기반' 방식을 새롭게 적용해 관광객의 경험 전반을 입체적으로 진단한다. 전국에서 정읍시에 딱 맞는 맞춤형 즐길 거리를 새롭게 발굴하게 된다.

과 전략 수립을 위한 최고 수준의 맞춤형 지문을 지원받게 된다. 사업은 5월부터 현장 조사와 전문가 자문, 방문객 설문 등을 거쳐 속도감 있게 추진되며, 올해 연말까지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현장에 즉시 적용할 수 있는 실행 가능한 관광 전략을 도출할 예정이다. 이를 계기로 메이플랜드를 가족 친화형 체류 관광 거점으로 집중 육성하고 관광객 체류 확대를 통해 지역 경제 활성화까지 도모한다는 밑그림이다.

/정읍=김대환 기자

20만평 청보리 물결 장관... 23일간 축제 돌입

'고창 청보리밭 축제' 개막... 보리밭 사이길 걷기 등 체험형 프로그램·주차요금 전액 상품권 환급 등

고창군이 지난 18일 공음면 학원관 광장 일원에서 '제23회 고창 청보리밭 축제' 개막을 개최하고 23일간의 축제 일정에 돌입했다고 밝혔다.

고창 청보리밭 축제는 약 20만여 평에 펼쳐진 청보리밭을 배경으로 자연과 문화, 체험이 어우러진 대한민국 대표 경관농업축제로, 매년 봄 전국 관광객들의 발길이 이어지는 고창의 대표 관광 콘텐츠다.

이날 개막식에는 김영식 고창군수 권한대행을 비롯해 조민규 고창군의 회 군의장 및 군의원, 윤준병 국회의원, 선운사 경주주지스님, 언론사 대표 및 자매결연도시인 서울 마포구와 전남 장흥군 관계자 등 500여 명이 참석하여 자리를 빛냈다.

개막식은 공음면 어울림 나다 오프닝 공연과 축제위원장의 개회선언으로 시작했다. 내빈들의 축하 인사와 고창이 자랑하는 보리로 만든 보리떡 케이크 커팅식으로 기념식을 진행 후 식후 행사로 군민들과 함께 보리밭 사이길 걷기를 끝으로 행사를 마무리했



다. 올해 축제는 '봄의 기억, 길 위에 남다'를 주제로, 청보리밭을 직접 걸으며 자연을 온몸으로 느낄 수 있는 '보리밭 사이길 걷기' 체험을 중심으로 다양한 프로그램이 운영된다. 특히 해당 체험은 유료(3000원)로 운영되어 방문객 참여도를 높이고, 보다 체계적인 운영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함께 고창군은 방문객 편의를 위해 주차요금 전액을 지역사랑상품권으로 환급하는 제도를 운영한다. 관광객은 환급받은 상품권을 축제장 먹거리 부스뿐만 아니라 고창군 전역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어, 관광 소비가 자연스럽게 지역 상권으로 이어지는 효과가 기대된다.

/고창=김영식 기자

'힐링해 고창 시티투어버스' 성황리 운영

전문 해설사 동행하는 해설형 관광 프로그램... 이용객 큰 호응

고창군이 운영 중인 '힐링해 고창 시티투어버스'가 관광객들의 높은 관심 속에 성황리에 운영되고 있다.

고창 시티투어버스는 △벚꽃축제 연계 코스 △치유관광 코스 △청보리밭 축제 연계 코스 △유네스코 세계유산 코스 등 총 4개 코스로 운영된다.

특히, 청보리밭 축제와 연계한 코스는 축제장을 방문하는 관광객들의 교통 불편을 해소하는데 큰 역할을 하며 예약이 조기 마감되는 등 이용객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해당 코스는 청보리밭의 아름다운 경관과 함께 무장읍성, 황윤석 도서관 등 주요 관광지를 연계해 운영되며, 고창만의 자연과 역사·문화를 한 번에 체험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만족도를 높이고 있다.

이용객들의 만족도 또한 높게 나타나고 있다.

시티투어 이용 승객은 "축제장까지 편하게 이동할 수 있어서 좋았고, 교통 걱정 없이 여행을 즐길 수 있었다"라고 말했으며, 또 다른 이용객은



"청보리밭뿐만 아니라 고창의 여러 관광지를 함께 둘러볼 수 있어 알찬 일정이었다"라고 전했다.

또한, 전문 해설사가 동행하여 단순 이동 수단을 넘어 고창 관광의 이해를 돕는 해설형 관광 프로그램으로 운영되며, 치유와 관광을 동시에 제공하는 것이 특징이다.

한편, '힐링해' 고창 시티투어버스는 사전 예약제로 운영되며, 고창군 홈페이지 통합예약시스템 및 전화 예약(063-560-2948)을 통해 예약할 수 있다. /고창=김영식 기자

정읍시, 4월 읍면동장 소통회의 개최

공백없는 현장 중심 행정 강조

정읍시가 지난 17일 이학수 시장 주재로 4월 읍면동장 소통회의를 열고 생활 민원 처리 현황 점검과 현장 중심의 행정 강화 방안을 집중적으로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는 이학수 시장과 유호연 부시장을 비롯, 23개 읍면동장 등 30여 명이 참석해 지난달 추진 실적과 이달 추진 사항, 향후 행사 계획 등 주요 현안을 꼼꼼히 점검했다. 아울러 현장 중심의 행정을 강화하기 위한 다채로운 의견을 자유롭게 나누는 소통의 시간도 마련됐다.

시는 회의를 통해 각 읍면동에 다가오는 읍면동민의 날 행사 준비에 철저를 기해줄 것과, 주 2회 이상 현장 점

검을 통한 생활 민원 발굴 및 신속한 대응을 주문했다.

또한 주요 사업의 조기 추진과 집행 관리, 시민과의 대화 건의 사항 관리, 불철 화재와 안전사고 예방 강화, 엄정한 정치적 중립 의무 준수 및 공직가장 확립 등을 중점적으로 당부했다.

이에 발맞춰 읍면동에서는 주민 생활과 밀접한 복지, 안전, 환경 분야를 중심으로 생활 민원 처리 현황과 지역 여론 동향, 우수 사례, 주요 사업 추진 상황 등을 상세히 공유하며 시정 발전에 힘을 보탤 예정이다.

이 시장은 "한 치의 행정 공백도 발생하지 않도록 무거운 책임감을 가지고 맡은 바 업무에 충실히 임해 주기를 바란다"고 거듭 강조했다.

/정읍=김대환 기자

부안노인복지센터, 치매 극복 선도단체 지정

업무협약·현판 전달식 개최

부안군 보건소(치매안심센터)는 치매 파트너를 양성하고 지역자원을 연계하기 위해 지난 17일 부안노인복지센터를 치매 극복 선도단체로 신규 지정하고 업무협약 및 현판 전달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현재 군에는 자원봉사센터, 경찰서, 실버복지관, 대한노인회 부안군

지회, 중·고등학교 등 총 10개의 치매 극복 선도단체가 있으며 지역 내 치매 인식 개선 등 치매 친화적인 부안을 만들기 위해 함께 노력하고 있다. 부안노인복지센터는 생활지원사가 활동하는 단체로 직원 및 생활지원사 전원이 치매 파트너 교육을 이수했고 향후 다양한 치매 극복 활동에 참여할 것이다.

/부안=김석진 기자

지구를 시원하게 식혀주는
에너지 절약 실천 방법

1. 사용하지 않는 전기제품은 플러그에서 뽑기
2. 전기세가 많이 나오는 제품 아껴쓰기
3. 겨울철 실내 온도를 20도로 유지하고 내복 입기
4. 전기 사용량이 많은 시간대에는 전기 사용량을 줄이기

▶ 전주매일 에너지캠페인